

# The Real Culture

2015.06\_Vol.0152



## Exclusive

7월, JTN라이브 콘서트 주인공 공개!

MC스나이퍼-지누션-옴므의 5월 'JTN 라이브 콘서트' 현장!

엄정화-송승헌 주연 '미쓰 와이프', 7월 개봉

영화 '혜경궁 홍씨', 6월 개봉 앞두고 메인 예고편 공개

대한민국 대표 댄스 뮤지컬!

# 새로운 퍼포먼스, 사랑하면 춤을춰라!



ISSN 2383-8825

황간-더리얼문화  
2015. 06. vol.0152  
8,000원  
JTN MEDIA

# The Real Culture

## 더리얼컬처 / 제이티앤미디어(주) 발행

발행인 정연우 전무 정선우

편집인 정세영

기자 윤보라, 윤하나, 박원숙, 서영희, 한미혜, 김영지, 이용제, 김유림, 노지영, 박병준

편집 조형운 디자인 정인희

광고 천선기, 서형래, 이현정, 서영희, 안윤희, 이현주, 정대용, 박병준, 박지혜, 이용제, 유재형, 한선아, 조아진, 이다연, 김지영

마케팅 김연호, 황선홍, 박선후, 강안나

기사제보 02-779-1595 / jtn@jtn.co.kr

광고문의 02-779-1596

구독신청 02-755-0294

팩스 02-755-0295

홈페이지 <http://jtn.co.kr>

1부 8,000원 월 1회 발행

발행처 100-2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7층 702호

등록번호 서울중라00589 등록일자 2014년 12월 10일

2015년 6월 08일 통권 제6호(152)

# The Real Culture Contents

- 06 MOVIE 영화 <극비수사>, 1차 포스터 전격 공개
- 08 MOVIE 엄정화-송승헌 주연 <미쓰 와이프>, 7월 개봉
- 10 MUSICAL 대한민국 대표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춰라>
- 14 MOVIE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돌아온다!
- 16 MOVIE 영화 <혜경궁 홍씨>, 6월 개봉 앞두고 메인 예고편 공개
- 20 CONCERT 7월 <JTN 라이브 콘서트> 주인공 공개!
- 24 REVIEW <MC스나이퍼-지누션-옴므>의 5월 'JTN 라이브 콘서트' 현장!
- 30 REVIEW <JTN 라이브 콘서트>, 현장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과의 공감을 높이다
- 34 PLAY 연극 <친정엄마>, 프리뷰 티켓 오픈
- 36 MUSICAL 야구선수 출신 배우 민우혁,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합류

10



Sa  
Choom

Beyond Dancing

OPEN RUN  
시네코아 사춤용관

제작 (주)투비컴 문의 02.3676.7616 예매 인터파크 옥션 www.sachoom.com





## 영화 '극비수사', 1차 포스터 전격 공개

김윤석-유해진 주연...6월 개봉

장르 드라마, 범죄 개봉 2015-06-18

감독 광경택

출연 김윤석, 유해진, 송영창

197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실제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극비수사'가 '형사와 '도사'의 캐릭터의 강렬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영화 '극비수사'는 1978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사의 33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이번에 공개된 1차 포스터는 아이를 찾기 위해 의기 투합한 형사와 도사 캐릭터가 극명히 돋보여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부산의 어느 골목, 한 손에 무전기를 든 채 서 있는 형사 '공길용'(김윤석)과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는 도사 '김중산'(유해진)의 강렬한 모습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눈 앞에서 범인을 발견한 듯 정면을 뚫듯하게 응시하고 있어 이후, 이들 앞에 어떤 사건이 펼쳐질 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여기에 "도사는 예언하고, 형사는 움직인다!"라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카피는 사주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사라는 실제 이야기에 궁금증을 더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호흡을 펼쳐낼 지 기대를 고조시킨다. 형사와 도사가 선보일 호흡을 기대케 하는 1차 포스터를 공개한 영화 '극비수사'는 6월 관객들을 찾아간다.



**엄정화-송승헌 주연  
'미스 와이프', 7월 개봉**

전국민 인생반전 코미디가 온다!

장르 코미디 개봉 2015-07  
 감독 강효진  
 출연 엄정화(연우), 송승헌(성환), 라미란, 김상호

엄정화, 송승헌의 첫 만남과 김상호, 라미란, 서신애의 가세로 화제를 모으는 영화 '미스 와이프'가 7월 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미스 와이프'는 잘 나가는 싱글 변호사 '연우'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하루 아침에 남편과 애 둘 딸린 아줌마로 한달 간 대신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유쾌한 인생반전 코미디이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엄정화와 송승헌의 첫 만남과 새로운 연기 변신 여기에 충무로 대세 배우 김상호, 라미란, 서신애가 총출동해 한층 기대를 더하는 영화 '미스 와이프'가 7월 개봉, 올 여름 단 하나의 코미디로 관객들을 찾는다. 매 작품 놀라운 변신과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명실상부 충무로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엄정화가 외모, 재력, 능력까지 다 갖춘 싱글 변호사에서 하루아침에

남편과 애 둘 딸린 아줌마로 180도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는 '연우' 역을 맡아 화려한 커리어우먼과 평범한 주부의 완벽한 극과 극 연기로 유쾌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묵직하고 진지한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 송승헌이 아내와 가족 밖에 모르는, 쓸데 없이(?) 잘생긴 구청 공무원 '성환' 역을 통해 지금까지의 남성적이고 강렬한 모습을 벗고 가정적이고 자상한 애처가 캐릭터로 새로운 연기변신을 꾀한다. 겉은 아줌마지만 속은 화려한 싱글 변호사 그대로인 캐릭터로 팔색조 연기에 역대급 정점을 보여줄 엄정화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반전 매력 선보일 송승헌의 첫 부부 연기 호흡으로 관심을 모으는 '미스 와이프'.

여기에 깊은 내공의 개성파 배우 김상호가 연우의 인생을 뒤바꾼 정체불명의 남자 '이소장'으로 등장하는 데 이어 독보적 코믹 센스의 충무로 대세 배우 라미란이 연우의 든든한 동네 친구 '미선'으로, 그리고 연기파 아역 배우 서신애가 연우와 성환의 사춘기 딸 '하늘' 역을 맡아 풍성한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아침에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게 된다는 신선한 설정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 엄정화-송승헌의 색다른 케미와 김상호, 라미란, 서신애의 풍성한 앙상블이 더해진 전국민 인생반전 코미디 '미스 와이프'는 7월 개봉, 시원한 웃음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사 랑 하 면 춤 을 춰 라



# Saa Choom

Beyond Dancing

OPEN RUN  
시네코아 사춤전용관

제작 (주)두비컴 문의 02.3676.7616 예매 인터파크 옥션 [www.sachoom.com](http://www.sachoom.com)



## 대한민국 대표공연,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춰라>

업그레이드 된 Interactive 년버벌 퍼포먼스의 새로운 탄생!  
2015 4월, 종로 시네코아에서 또 한 번의 축제가 펼쳐진다!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랑하면 춤을춰라>가 종로 시네코아 4층으로 전용관을 이전합니다.

장소 이전과 함께 볼거리 가득한 무대, 현대적으로 감각적인 연출,

춤꾼들의 끼와 열정이 어우러져 Trend, Modern, Digital이 콜라보레이션 된

진정한 Interactive 년버벌 퍼포먼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랑하면 춤을춰라>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해주세요!





춤은 자유다.  
춤은 언어다.  
춤은 소통이다.

〈사춤〉은 주 표현 소재를 세계적 언어인 '춤'으로 택하고 있는  
년버벌 형식의 댄스 뮤지컬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 속에  
힙합,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댄스 등을 유쾌하게 배합시켜  
공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축제입니다.

## Review ★★★★★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춤과 음악, 영상과 조명은 관객에게 뿌리치기 힘든 최면술이다.  
객석은 고난도 춤들에 술렁이며 탄성을 도해낸다. / 조선일보

힙합 재즈 테크노 브레이크 팝댄스 고전발레 스텝프까지  
살아있는 댄싱머신들의 춤은 무대를 빈틈없이 꽉 조인다. / 세계일보

현란한 춤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악은 관객을 들썩이게 하기에 충분하다.  
폭발할 듯 뿜어져 나오는 열기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엿볼수 있다. / 매일경제





## ★★★★★ Synopsis ★★★★★

‘무대의 땀방울은  
그대로 객석으로 후두둑 떨어질 것이며  
열정의 끝에서 분출되는 배우들의 거친 호흡을  
코앞에서 들을 수 있다.’

사춤은 준, 선, 빈 3인의 탄생부터 7세, 15세, 19세 등

성장기 에피소드와 서로의 관계에 관한 서사다.

탄생, 성장, 사랑의 모든 감정을 언어가 아닌 춤으로 표현하는 사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공감할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에

힙합,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댄스, 팝댄스 등을 유쾌하게 배합시킨다.





##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돌아온다!

오는 7월 2일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개봉

장르 액션, 모험, SF, 스릴러 개봉 2015-07-02

감독 앨런 테일러

출연 아놀드 슈왈제네거(터미네이터), 제이슨 클락(존 코너)

‘영원한 터미네이터’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돌아왔다. 터미네이터의 아이콘이자 상징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7월 2일 개봉을 확정할 올 여름 초대형 SF 액션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를 통해 다시 한 번 터미네이터로 등장해 관객들에게 향수와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인류의 운명을 걸고 역대급 전쟁이 벌어지는 이번 편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싸우는 놀라운 진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라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터미네이터’의 상징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출연해 등장만으로도 화제를 낳고 있는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2029년, 존 코너가 이끄는 인간 저항군과 로봇 군단 스카이넷의 미래 전쟁과 1984년, 존 코너의 어머니 사라 코너를 구하기 위한 과거 전쟁을 동시에 그린다.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의 영화 터미네이터 리부트(Reboot)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시리즈를 손꼽아 기다려온 예비 관객들을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이번 작품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터미네이터’ 1편에서 첫 악역 연기였던 T-800을 완벽 소화하며 터미네이터의 탄생을 알렸고, 이번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까지 출연하면서 시간의흐름을 거스르는 터미네이터의 진면목을 과시한다. 리부트의 첫 작품이 될 이번 편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30년 전과 거의 유사한 체형을 선보이기 위해 혹독한 감량과 트레이닝을 통해 젊은 시절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와 현재, 과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전쟁이라는 스토리 전개에 따라 과거와 현재의 터미네이터가 시공을 초월하는 대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영화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최신 컴퓨터그래픽으로 완성된 1984년의 젊은 시절 아놀드 슈왈제네거의등장이 놀라움을 더한다. 스크린에 구현된 과거와 현재의 터미네이터를 비교하는 것도 이번 작품의 볼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2015년 여름, 전 세계를 강타할 SF 액션 블록버스터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7월 2일 개봉한다.



## 영화 '혜경궁 홍씨', 6월 개봉 앞두고 메인 예고편 공개

3대에 걸친 조선왕가의 비극 담아

장르 드라마 개봉 2015-06-04  
 감독 장동홍  
 출연 윤여성, 김소희, 정태화

3대에 걸친 왕족의 역사를 담은 '혜경궁 홍씨 (DnC Live)'가 오는 6월 4일 개봉을 앞두고 메인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한이 어린 정조의 강렬한 대사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단 번에 움직인다. “아버지가 기갈과 허기 속에서 죽어가는데 떠들면서 술과 떡을 쳐먹었습니다.”라는 대사와 함께 이어지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무대 위 모습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국내 최고의 연극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며 시선을 압도한다. 이어 “일찍 죽은 세자의 아내이고, 이제는 임금의 늙은 어미일 뿐이로구나”라는 대사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기구한 운명을 겪어야 했던 여인’이라는 카피와 함께 혜경궁 홍씨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또한 지난 연극 무대에 대한 언론과 평단의 극찬은 ‘2014년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연극 베스트 3’라는 카피와 함께 작품을 향한 관객들의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자아내며 무대와 스크린을 모두 장악할 2015년 최고의 마스터피스의 탄생을 알린다. ‘혜경궁 홍씨(DnC Live)’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영화와 연극의 콜라보레이션 [DnC Live]의 첫 번째 작품이자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모던한, 또한 가장 연극적이면서도 영화적인 연극계 거장 이윤택 연출가의 대표작이다. 동명의 원작 연극은 지난 2013년 국립극단 레퍼토리 창작회극 무대에서의 초연과 지난해 재연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한바 있다.

또한 '오구', '어머니', '시민K', '햄릿'의 공연 예술계 거장 이윤택 연출가와 그의 페르소나이자 대체할 수 없는 연극 무대 최고의 스타 김소희의 앙상블로 기대를 모으며, 스크린을 통해 만나보게 될 국내 최고의 연극 무대에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역사의 속살을 드러낸 한 여인의 기록 '혜경궁 홍씨(DnC Live)' 그 감동의 무대는 6월 4일 스크린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 ***JTN LIVE CONCERT***

**2015년 7월은 YB&뜨거운감자와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멤버십 JTN EVENT  
가입문의 02-779-1595~7 [www.jtnevent.com](http://www.jtnevent.com)



# J T N LIVE CONCERT

2015. 07. 25. 8PM YB&뜨거운감자 @올림픽 체조경기장





## MC스나이퍼, 5월 'JTN 라이브 콘서트' 현장!

11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지누션과 한국힙합 1세대 래퍼 MC스나이퍼가 화끈한 무대로 2만여 관객을 압도했다. 4일 오후 8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JTN 라이브 콘서트'의 주인공은 지누션과 MC스나이퍼. '말해줘', 'A-yo', '전화번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누션은 최근 타블로가 공동 작사, 작곡에 참여한 '한번 더 말해줘'를 발표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힙합 1세대 래퍼로 힙합계의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MC스나이퍼는 지난해 긴 공백을 깨고 미니앨범을 발표한 후 최근 신곡 '사랑비극'을 발표하는 등 다시 대중들 앞에 서고 있다. 이날 진행된 5월 'JTN 라이브 콘서트'의 첫 무대는 MC스나이퍼의 강렬한 무대로 시작됐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MC스나이퍼입니다. 'JTN 라이브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무대부터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띄운 MC 스나이퍼는 'Gloomy Sunday', '할 수 있어', '린포체', 'BK LOVE' 등 폭발적인 랩을 선보였다. 이후에도 '사랑했잖아', '봄이여 오라', '잠팝', '푸쉬 잇' 등 연이어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음악으로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내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날 MC 스나이퍼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예정에 없었던 곡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DJ에게 부탁했다. 신나게 즐겨달라"면서 '붉은 노을'을 즉석에서 추가해 부르기도. 또 관객들의 앵콜 요청에 다시 무대에 오른 MC스나이퍼는 "앵콜을 받게 되다니 감개무량하다. 제 뒤에 지누션 형님들의 무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력을 감안해 잔잔한 노래를 하겠다"며 '마법의 성'을 불렀다. 특히 MC스나이퍼는 앵콜곡 '마법의 성'을 부르기 전, 관객들에게 휴대폰 플래시를 켜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현장을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채워 아름다운 장관이 연출됐다. 한편 MC스나이퍼에 이어 이날 콘서트에는 지누션이 두 번째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호응을 선보였다.

글: 윤보라 기자 | 김진아 기자 / 스튜디오 지나





지누션,  
5월 'JTN 라이브 콘서트' 현장!

11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지누션과 한국힙합 1세대 래퍼 MC스나이퍼가 화끈한 무대로 2만여 관객을 압도했다. 4일 오후 8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JTN 라이브 콘서트'의 주인공은 지누션과 MC스나이퍼. '말해줘', 'A-yo', '전화번호'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누션은 최근 타블로가 공동 작사, 작곡에 참여한 '한번 더 말해줘'를 발표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힙합 1세대 래퍼로 힙합계의 음유시인이라 불리는 MC스나이퍼는 지난해 긴 공백을 깨고 미니앨범을 발표한 후 최근 신곡 '사랑비극'을 발표하는 등 다시 대중들 앞에 서고 있다.

이날 진행된 5월 'JTN 라이브 콘서트'의 첫 무대는 MC스나이퍼가 장식했으며, 이어 뜨거운 함성과 함께 두 번째 무대에 오른 팀은 지누션. 11년 만에 컴백해 음원사이트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한번 더 말해줘'로 첫 무대를 꾸민 지누션은 'A-Yo', '열정'을 연이어 부르며 둘만의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였다.

"안녕하세요 지누션입니다. 11년 만에 컴백했어요. JTN 가족 여러분 어떠세요? 지누션 반갑나요? 오늘 가족같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2만여 관객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한 지누션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지 예상치 못했다"며 "상당히 큰 공연장인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다. 빅뱅 콘서트 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다"고 기분 좋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Jinuseon Bomb', '가솔린', 'How deep is your love', '빙빙빙', '신나는 힙합' 등 다양한 곡을 선보인 지누션은 "지금까지는 맛보기였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들을 들려드리겠다"면서 '전화번호', '말해줘' 등 히트곡 무대를 꾸며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날 지누션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그 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도 용기를 못냈을 텐데, 정말 반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한 뒤 앵콜곡으로 '한번 더 말해줘'를 다시 한 번 부르며 5월 'JTN 라이브 콘서트'를 마무리 했다.

글: 윤보라 기자 | 김진아 기자 / 스튜디오 지나



# 옴므, 5월 'JTN 라이브 콘서트' 현장!

5월 4일 지누션과 MC스나이퍼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 5월 'JTN 라이브 콘서트' 첫 공연에 이어 5일 열린 두 번째 공연에는 남성 듀오 옴므가 잔잔하면서도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5일 오후 5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5월 두 번째 'JTN 라이브 콘서트'에는 지난해 케이윌 공연의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했던 그룹 옴므가 이번에는 단독 주인공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인기아이돌 2AM 메인보컬 출신 이창민과 혼성그룹 8eight의 이현이 작곡가 방시혁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결성돼 벌써 5년차를 맞은 옴므는 이날 최고의 가창력과 넘치는 에너지로 1만 5천여 관객과 호흡했다.



'남자니까 웃는거야', '니가 그리울리 없어'로 본격적인 'JTN 라이브 콘서트'의 문을 연 옴므는 "지난해 'JTN 라이브 콘서트' 케이윌 편에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했는데, 많은 분들이 본 공연보다 저희들의 공연에 더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웃음)"며 "케이윌, 포맨에 이어 저희 옴므를 주인공으로 초대해주신 걸 보니, JTN이 이제 비주얼적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유머 섞인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옴므의 콘서트는 '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며 '뻘한 사랑 노래', 'It GIRL' 두 곡을 연이어 불렀다. 이후에는 "사랑의 설렘을 표현한 두 곡을 불렀으니, 이제 곧 결혼이다"라며 '결혼해줄래'를 불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특히 '결혼해줄래' 곡에서는 한 여성 관객의 참여를 유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이날 옴므는 'She's Gone', '이 노래', '너뿐이야', '고해', '30분전', '전화 받지 않는 너에게', '심장이 없어' 등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와 가창력으로 관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또 이창민은 '너뿐이야'를, 이현은 'Dance with my father'를 선곡해 각각 솔로 무대를 선보이기도. "1시간 동안 사랑을 주제로 설렘과 결혼, 이별까지 모두 보여드렸네요. 이별은 유독 기니까 이별에 관한 곡을 두 곡 더 불러드릴게요" 이날 옴르는 발라드 가수답게 애절한 이별 곡 '가슴이 시린게', 'Moment' 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객석을 잔잔한 감동으로 물들였다. 이후 옴르는 '밤사' (밤과 음악사이: 1980~1990년대 가요가 흘러나오는 술집)를 콘셉트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무대에 나타나 90년대 인기 가요 '3,4', '천생연분', '가위', '호린 기억 속에 그대' 등을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화끈하게 달궜다. 특히 화려한 퍼포먼스는 물론, 노래 도중 상의를 서로 찢는 등 상반신을 탈의, 그동안 다져온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처럼 화끈한 하이라이트 무대를 선보인 옴르는 이날 공연 내내 특유의 재치있는 입담과 넘치는 에너지로 1만 5천여 관객과 소통했다. 마지막 곡 '밥만 잘 먹더라'로 공연을 마무리 한 옴르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옴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래 활동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모두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다"라며 "오늘의 공연은 새로운 도전이다. 이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옴르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앵콜곡 '내꺼 중에 최고'를 끝으로 이날 'JTN 라이브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글: 윤보라 기자 | 김진아 기자 / 스튜디오 지나



# 콘서트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요

'JTN 라이브 콘서트',  
협찬 기업 현장프로모션을 통한 고객과의 공감을 높이다

5월 4일과 5일 'JTN 라이브 콘서트' 지누션/MC스나이퍼(4일)과  
옴므(5일)이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체조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JTN미디어(주)(대표이사 정연우)가 주최한 이번  
'JTN 라이브 콘서트'는 이를 동안 30,000명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JTN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콘서트 협찬과  
함께 다양한 현장 홍보마케팅을 선보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 다양한 협찬기업 다양한 프로모션

이번 콘서트에 참여한 협찬기업들 중 한 홈쇼핑 기업은 참여객을  
대상으로, 관련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공 던지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패밀리레스토랑 식사권이나 영화 티켓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한편 과채주스 유통 브랜드에서는 참여만 해도 100%  
당첨이 가능해 해당음료제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오리고기 유통기업의 경우 '오리'의 특수  
발음을 활용하여 '52초를 잡아라!!'라는 이벤트를 벌여 타임워치를  
보지 않고 5.2초안에 타이머를 멈추면 오리육포를 주는 참신한  
사은이벤트를 벌여 참여객들에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하게 판매하지 않아요 ~  
재밌게 즐기면서 구매하세요!!*

이번 현장프로모션에서는 단순 이벤트 홍보만이 참여한 것은 아니다.  
한 스무디 업체의 경우 주스와 샌드위치를 판매를 진행하면서 주사워  
던지기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 참가자 전원에게는 음료 구매 시  
사이즈업의 혜택과 게임에서 승리하였을 경우 프리첼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게임을 진행하는 행사  
스태프의 경우 익살스러운 과일 인형 옷을 입고 게임을 진행하며  
생과일주스라는 점을 참여객에게 어필하기도 했다.



## 응모방법도 각양각색 응모이벤트도 다양 하더라~

응모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관련 응모를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의 유명 제품을 증정하기도 하였으며 여성가방 브랜드의 경우에는 해당모델들의 코디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백팩 패션에 스티커 투표에 참여하면 시원한 스무디를 제공했다. 또한 113년 전통 독일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명성에 걸맞게 페이스북 '좋아요'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의 신제품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였다.

## 공연현장에서 공연을 홍보한다?

대학로 연극 업체들의 홍보도 이색적이었다. 이번 콘서트에 참여한 극단들의 경우 높은 작품성과 함께 대학로를 대표하는 유명 연극들로 새롭게 영화제작이 들어간 작품이 있을 정도의 극단이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다. 해당 극단들은 연극의 소개가 들어있는 카다로그와 함께 연극 할인권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하여 관심을 끌었다.

'JTN 라이브 콘서트'는 공연의 즐거움과 함께 각 협찬사의 이색적인 이벤트와 대형 콘서트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더욱 강화시킨다. 때문에 콘서트를 보기직전에 관람객들의 감정의 기복이 극대화가 되고 흥분감은 더욱 높아져 관련 홍보에 대한 긍정성도 함께 높아진다.

콘서트 현장마케팅을 통한 긍정적 효과는 무한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JTN 라이브 콘서트'는 격월로 진행되고 있으며, 7월에는 YB와 뜨거운감자가 출연할 예정이다.

글: 이용제 기자

## 돌리고 던지고 뽑는데도 당첨확률이 ~!!!

이번 이벤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이벤트로 볼거리도 많았지만 높은 당첨확률도 참여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이다. 국제전화 브랜드와 제과 제빵 유통 기업 그리고 후원사이기도 한 제약회사의 경우 룰렛의 50% 이상의 당첨확률을 높여 해당 제품을 제공하거나 기업 로고가 들어간 물티슈를 참여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 기업과 해당제품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여행사 브랜드의 경우 뽑기를 통해 인형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다른 기업들 보다 오픈이 30분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조기 종료되는 높은 당첨 확률을 보여주기도 했다.



# 연극 '친정엄마', 프리뷰 티켓 오픈

〈 티켓 할인 제공...5월 30일부터 대학로예술마당 1관 〉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되어가는 '모녀시간'이라면 꼭 함께 볼만한, 함께 봐야 할 연극으로 연극 '친정엄마'를 추천한다. 연극 '친정엄마'는 마흔이 다 된 딸에게 여전히 아가라고 부르며 뭐든지 해주고 싶어 안달인 엄마와 그런 엄마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엄마의 고생에 "내가 엄마 땀에 못 살아"라는 말로만 화답하는 딸이 그리는 현실적이고 공감 어린 이야기로 세상 모든 모녀를 대변하는 듯한 마치 나의 이야기 같은 대중적인 친밀감과 공감하는 정서로 관객들에게 찾아간다. 3년만에 무대로 돌아온 연극 '친정엄마'는 2004년 소설 출간 이후 이 시대의 어머니와 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웃음과 슬픔을 선사했으며, 소설 속에 들어있는 고해정작가의 재치 있는 입담과 표현이 그대로 공연에 녹아 재미와 따뜻한 눈물, 벅찬 감동을 이번 무대에서도 세상에 모든 엄마와 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사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전할 것이다.

연극 '친정엄마'는 대한민국 대표 베테랑 배우들이 출연해 진정성 연기를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루에도 열두 번 딸 걱정만 하며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지 할 수 있는 '엄마' 역에는 '박혜숙'과 '조양자'가, 하루 한시를 매일 바쁘게 생활하는 엄마의 안부 전화가 귀찮기만 '딸 미영'역에는 '이경화'와 '차수연'이 출연해 내공이 강한 연기파 배우들이 공연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되새겨 볼 수 있는 2015년 5월 최고의 힐링극 연극 '친정엄마'는 5월 8일 오후 3시 프리뷰 공연 티켓을 오픈하며,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의 공연 예매 시 전 좌석 50% 프리뷰 할인을 진행한다. 한편 연극 '친정엄마'는 8월30일까지 대학로예술마당 1관에서 공연된다.

# 야구선수 출신 배우 민우혁, 야구 뮤지컬 합류

〈 뮤지컬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캐스팅 〉



국내 최초 야구 뮤지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의 추가 캐스팅이 공개됐다. 전 야구 선수 출신으로,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관객들에게 확실한 눈 도장을 찍은 배우 '민우혁'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11년 뮤지컬 '젊음의 행진'을 시작으로 '김종욱 찾기', '폴하우스', '총각네 야채가게', '쓰루더 도어'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선 굵은 연기를 보여오며, tvN '홀리랜드', MBC '천 번째 남자', OCN '뱀파이어검사 시즌2' 등 브라운관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비쳐온 민우혁은 단기간에 인기 뮤지컬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본인만의 필모그래피를 채우고 있다. 고교때까지 야구 선수로 활약하며, 현재도 연예인 야구단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야구에 대한 그의 강한 열정은 작품에 대한 대본을 접한 후 밤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제작진에게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6월 첫 공연을 앞두고, 지난 5월초부터 연습에 들어가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 제작진은 민우혁의 합류로 한층 더 역동적으로 활기를 띄게 되었다며, 실제 야구 선수 출신인 그가 실존 인물이자 운명 앞에 당당히 맞서는 천재 투수 '김건덕' 역할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했다. 1994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이승엽' 선수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천재 투수 '김건덕'의 실화를 바탕으로 방향하는 청춘을 위로하며 스스로 일어나는 용기를 이야기하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는 야구밖에 모르던 소년들의 꿈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성장 이야기를 신선하게 전달한다.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는 6월 26일 부터 대학로 TOM 1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하며,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 1544-1555)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글: 윤보라 기자 | 사진제공: ㈜위네트웍스